

진경산수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자연의 이치를 따르고 풍수를 참작해 살아왔으며 이런 관점에서 신성한 기운을 지닌 산을 '명산'이라고 부른다. 최근 유행하는 한국의 주거 문화는 '진경산수'라는 이름의 조경법으로, 자연의 돌과 분재로 '금강산' 같은 명산을 아파트 단지 안에 축소 재현하는 것이다.

나는 수많은 상징물 중에서도 왜 '산'인지 궁금했고, 입주민이 아니면 사진 촬영 권한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쫓겨날 때마다 풍경을 '소유'하려 한다고 생각했으며, '만물상', '용아장성', '횡악' 등의 설화와 풍수를 읽으면서 '명산'의 '기운'이 삶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사람들의 '집단적 무의식' 속에 여전히 남아 있음을 느꼈다.

오랜 시간 이곳들을 찾으며, '자연과 인공', '정신과 물질', '전통과 현대' 등이 불법적으로 나누어 가치를 판단하던 시대가 지났음을 깊이 공감했다. 고급 아파트에 경쟁적으로 설치 중인 이 기념비적 풍경은 과거의 '정신적 가치'를 내밀하게 융합시킨, 현대 도시가 만든 '숭고의 물질화' 현상으로 인간의 정신과 욕망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Jingyeong Sansu

Koreans have traditionally followed natural principles and lived in consideration of feng shui, and in this context, there are some mountains with sacred energy. The recent popular Korean residential trend is to make famous mountains such as "Geumgang Mountain" in apartment complexes with natural stones, bonsai, and moss. Among the numerous symbols, I wondered why it was a mountain, and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past decade, I feel that the belief that the energy of famous mountains have a good effect on life still lingers in people's "collective unconsciousness".

This landscaping method, patented as "Jingyeong Sansu", is still delaying my judgment as it seems to be a "materialization of sublime" phenomenon that combines "spirit and matter" complexly and inwardly, leaving behind the era of natural and artificial and tradition and modernity.

**Jingyeong Sansu* is a Korean traditional aesthetic term, and is also the patent name for landscaping in these photos.